

1 본회소식



SNU아트페어 성공적 개최



본회(회장 권영걸/69응미)는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66사회복지)와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서울미술나눔 - 2022 SNU아트페어>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본회 회원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서울대 동문들에게 작품 소장 기회와 수익금의 일부를 서울대총동창회에 장학금(미대특기장학금)으로 기부하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이번 SNU아트페어에서는 올해 미대 최초로 관

악대상을 받은 김인중 동문을 비롯해 김병중, 김소선, 김춘수, 민정기, 신장식, 유인수, 이길원, 이혜민, 한운성 동문 등 50여 명의 동문들의 회화 및 조각 140여 점이 전시되었다. 지난 5월 23일 오후 4시에 본회 권영걸 회장과 유인수 명예회장, 초대인사 및 출판작가들이 참석해 진행된 오프닝 행사에는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변주선 부회장, 이경형 부회장, 이선진 부회장, 정옥란 부회장, 안성훈 이사, 이승무 사무총장 등과 모교 김성희 학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날 권영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백남준 선생님께서 '예술가는 위대하지만 예술품을 사는 사람은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예술가는 고독하게 캔버스를 앞에 두고 싸움을 하고 있지만, 그 작품이 예술가의 창고에 있다면 무슨 소용인가. 모든 예술 작품은 누군가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술 작품을 검토했던 창

고에서 나오게 해주는 사람이 예술가보다 더욱 위대하다는 뜻이다. 이번 아트페어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하시길 바란다"고 말해 웃음과 공감의 박수를 이끌어 냈다. 또한 김종섭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미대에서는 총동창회와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권회장님이 총동창회와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 미술대학 동문회의 큰 발전을 기원한다"고 했다. 이어 김성희 모교 학장은 축사를 통해 "동창회장님께서 졸업생들에게 상도 증정하시고, 올해에는 선정된 학생들을 초대해서 전시할 기회도 주셨다. 학생들의 창작활동을 끌어주고 키워주기 위해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는 점, 꾸준히 도와주시는 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22SNU아트페어는 전시기간 내 많은 방문객과 사전예약 및 전화예약까지, 동문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성황리 종료되었다.



본회 소식

미술아카데미 개최



지난 4월 서울 마포구 SNU장학빌딩 베리타스홀에서 개강한 미술아카데미가 오는 6월 종강을 앞두고 있다. 본회가 주관하고 서울대총동창회가 주최하는 미술아카데미는 서울대 동문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매주 수요일마다 열리고 있는데 모집인원 49명을 훌쩍 뛰어넘은 70여명의 동문들이 수강을 신청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4월 20일 심상용(81회화)동문이 '한국현대미술'을 주제로 진행했던 첫 강의에 이어 5월 4일과 11일에는 건국대학교 겸임교수인 최혜원(89동양) 동문이 '미술후원의 역사'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특히 5월 18일에 진행된 국민일보 부국장이자 문화전문기자인 손영옥(박사11미술경영) 동문이 '미술품 투자'로 진행한 강좌에서는 같은 장소에서 SNU아트페어가 열리며 수강생들에게 전시감상의 기회를 함께 제공했다. 곧 다가올 6월 8일과 15일에 열리는 미술사가 이연식(90서양) 동문의 '위작과 모작' 주제의 마지막 강좌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질 예정이다.

베리타스미술상전 개최

'2022 베리타스미술상전'이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포스코 더샵갤러리 초대전으로 개최된다. 이번 전시에는 베리타스미술상 수상자인 김수연(17공예), 손석민(17디자인), 이규림(15디자인), 이은호(15동양), 이재석(15조소), 이호경(17영상), 장재경(16서양), 전희영(17공예) 등 8인이 참여하여 젊은 시각과 새로운 시선을 통해 자신들만의 예술세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올해 처음 개최하는 베리타스미술상전(동창회장상)을 수상한 각 전공별 우수 졸업생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앞으로 작품활동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된 전시이다.

모교 소식

동양화와 전시물품 대여

모교 동양화과(학과장 조인호)는 학과사무실에서 1학기 과제전을 위해 학생들에게 전시와 관련된 물품들을 대여하고 있다. 단, 물품을 대여할 때는 명부를 필수적으로 작성하고, 대여한 물품들은 대여한 당일 안에 반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급상자를 비치해 상비약이 필요할 때에도 학과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구비 물품과 대여 방법은 동양화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snu.orientalpainting_official)

동양화와 스케치 여행



동양화와 스케치 여행이 지난 5월 13일 교내에서 열렸다. 원래 스케치여행은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과 역사가 담긴 지역을 1박 또는 2박 일정으로 탐방하며 드로잉, 단체스케치를 하는 행사이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졌었다. 오랜만에 열린 이날 행사는 학부 및 석박사과정 재학생을 비롯해, 교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디자인리더양성사업단 특강



디자인학과(학과장 장성연)의 '사회적 감수성을 실천하는 서울대학교 디자인리더양성사업단'이 지난 5월 4일 스웨덴에서 활동 중인 릴라엘리먼트 대표 김예솔 디자이너와 덴마크에서 활동 중인 다큐멘터리 감독 Jacob Yoon Egeskov Nossell을 초청해 'Objectified' 강연을 진행했다. 서울대 'SNU 10-10 PROJECT'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강연은 Universal Design의 관점으로 장애인의 몸을 대상화하는 디자인 작업과 다큐를 주제로 다루었다.

제19회 남가주동문회전

새로운 작품 통해 봄과 같은 활력과 생기를

미국과 한국서 활발히 활동 작가 16명 참여



2022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FINE ARTS

▲남가주동문회의 제19회 동문전의 포스터. 작품/ 순서는 (맨 윗줄 왼쪽부터) 강영일, 백혜란, 신혜자, 박영구, (둘째줄 왼쪽부터) 신정연, 성수환, 오성주, 서동현, 김경애, (셋째줄 왼쪽부터) 김구자 황영애, (맨 아래줄 왼쪽부터) 심영자, 이명규, 장원경, 한석란

남가주동문회(회장 한석란/71조소)의 제19회 동문전이 지난 5월 7일부터 31일까지 미국 LA 한인타운 인근 S-갤러리(대표 한귀희/68회화)에서 열렸다. 남가주동문전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동문작가 16명이 참여해 다양한 기법과 재료를 사용한 최신 회화 및 조각 작품



들을 선보이는 전시회다. 남가주동문회는 완연한 봄을 맞아 코로나19 사태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활짝 봄과 같은 생기를 불어 넣는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의 참여 작가는 강영일, 김경애, 김구자, 박영구, 백혜란, 성수환, 서동현, 신정연, 신혜자, 심영자, 오성주, 이명규, 장원경, 한석란, 현혜명, 황영애 동문 등 총 16명이다. 이번 전시기간 중 5월 14일에는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작품 옥션 행사가 열렸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을 해가고 있는 동문전 작품 옥션은 정상가보다 30~4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시작하여 좋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자 하는 분들의 구매를 돕는 행사이며, 판매된 작품은 탁상달력으로 제작돼 동문들의 애장품이 되고 있다. 한편 S-갤러리는 LA 한인타운 인근 헐리웃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최신 시설의 갤러리로, 5개 전시홀에 총 6,000스퀘어피트에 달하는 규모를 자랑한다. 서울대 남가주총동창회장장과 서울대미대 남가주동창회장장을 역임한 S-갤러리 대표 한귀희 동문은 "S-갤러리는 한인타운 내 제1관에 이어 이번에 한인타운에서 접근성이 좋은 장소에 제2관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며 "한국과 미주에서 활동하는 서울대 출신 작가들을 위한 공간으로 비영리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서울대 소식

44년된 문손잡이 ‘샤 트로피로



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재건축 과정에서 낡은 옛 건물 안팎의 다양한 소재를 재활용하는 ‘건물 업사이클링’을 시도하고 있다. 8월 완공예정을 목표로 현재 재건축중인 자연과학대학 28동은 관악캠퍼스가 조성되던 1976년에 지어져 44년간 강의 공간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28동을 허물기 전인 지난 2020년 대형 강의실의 책상이나 의자, 현관 철문, 계단 목재 난간, 외벽 타일 등 건물 자재를 떼어낸 뒤, 이를 서울대 교수 7명이 참여해 업사이클링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이다. 이에 대해 모교 디자인과 이장섭 교수는 “학교에서 건물을 새로 지을 때 기존 건물 자재를 업사이클링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대 곳곳에서 현재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건물 업사이클링 또한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28동의 건물 자재 중 서울대 정문의 ‘샤’ 모양이 새겨진 현관문 손잡이는 자연과학대학에 공헌한 이들에게 줄 트로피로, 대형 강의실 의자의 빨간 원단은 파우치로, 낡아서 곳곳이 벗겨진 나무 계단 난간과 목제 의자 팔걸이는 예쁘게 디자인한 나무 쟁반으로 만든다. 오래된 라디에이터는 새 건물 로비에 조형물로 활용한다.

신림선 개통



서울대에서 여의도까지 16분 만에 이동하는 신림선 도시철도가 지난 5월 28일 개통했다. 신림선은 샛강역부터 관악산(서울대)역까지 11개 정거장을 연결하는 총 7.8km 노선이며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행한다. 9호선 샛강역1호선 대방역7호선 보라매역2호선 신림역 등 4개의 환승역을 지나는 신림선 개통으로 서울 서남권 지역에서 이동하는 재학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신림선을 이용하면 여의도 샛강역에서 관악산(서울대)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된다. 기존 버스로 35분 이상 걸린 시간이 16분으로 짧아진다. 배차 간격은 출퇴근 시 3.5분, 평상시 4~10분이다.

시흥시와 첫 문화협력 사업



어린이날 선포 100주년을 맞아 서울대와 시흥시가 문화 협력 사업으로 지난해 조성한 ‘SNU 배곧 아트 큐브’의 첫 번째 기획전사인 ‘다시 만난 나의 영웅, 로봇 태권브이 피규어 아트잔’이 지난 5월 3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됐다. 빠르게 변하는 현시대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잊혀진 ‘로봇 태권브이’가 150여 점의 피규어 아트전으로 관람객에게 다시 찾아온 것은 지난 어린 시절을 잊고 있던 기성세대에게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었다. ‘달려라 달려 로봇야, 날아 날아 태권브이~’로 시작하는 ‘로봇 태권브이’ 주제는 멜로디와 가사 만으로도 당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심어주었다. 이번 전시는 특히 2m가 넘는 대형 피규어가 있는 포토존을 비롯해 당시의 만화영화를 그대로 복원, 상영하는 멀티미디어존등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관람 포인트를 여럿 선보였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기획전시는 기성세대에게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있었던 그 시절의 영웅과 마주하며 지난 시절의 나를 되돌아보고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영웅을 만나며 어른과의 교감의 찰나를 선물할 것"이라고 전시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SNU 배곧 아트큐브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1층 로비 유휴공간을 전시홀로 재생한 문화공간이다.

문화체험 원데이클래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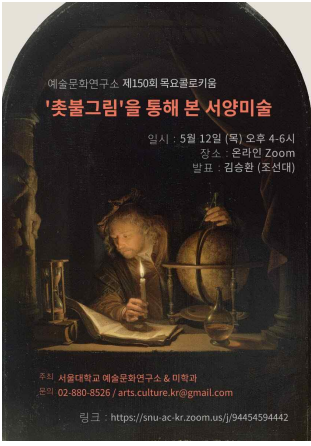
서울대 총학생회 산하 문화자치위원회가 학생들의 즐거운 대학생들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원데이클래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학내 문화생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문화행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과 함께 행사에 필요한 장비와 물품을 대여해주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취미를 쌓을 비용 및 시간 등이 부담스러운 학내 구성원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활동을 무료로 경험하는 원데이클래스를 지난 2019년부터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원데이클래스에서 주목할 점은 튜터뿐 아니라 튜터도 모두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튜터들은 자신의 열정을 나누고 싶은 사람, 특히 온라인 수업 진행 경력이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문화자치위원회는 오는 가을 정규학기나 겨울 계절학기에 수요조사 후 다양한 클래스를 새롭게 개설할 예정이다.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다.

정문광장 조성 및 샤조형물 도색



서울대 정문의 ‘샤’ 조형물 도장공사가 지난 5월 6일부터 진행됐으며, 인근에서 광장 조성 공사도 함께 착수됐다. 철 구조물은 녹 방지를 위해 10년마다 도색을 진행하는데, ‘샤’ 정문의 경우 도색 권장기한을 넘기다가 이번 광장 조성으로 주변 교통이 통제됨에 따라 16년 만에 추진됐다. 도색은 같은 색상으로 진행되며, 5월 말 완료됐다. 한편 우회로 공사 후 정문 주변은 광장의 형태를 갖추게 될 예정이다. 광장 공사는 본래 지난해 가을 추진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와의 도로 이전 협의 지연, 캠퍼스위원회의 설계 보완으로 지난달에 공사 계약이 완료됐다. 공사는 후기 학위수여식을 고려해 8월 중순에 완공된다.

예술문화연구소 목요콜로키움



서울대 예술문화연구소 제150회 목요콜로키움 <‘촛불그림’을 통해 본 서양미술>이 지난 5월 12일 개최됐다. 이날 조선대 김승환 교수가 촛불이라는 소재 혹은 주제가 서양 문화를 읽는 도구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살펴보는 강연을 열었다. 강연은 줌으로 진행되었으며 미술작품의 해석에 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김승환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미학을 전공하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에서 미술사 석사박사 학위를 했다. 2001년부터 조선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서양미술사와 미술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대학과 도시’ 포럼 개최



제4회 대학과 도시(Univer+City) 포럼이 지난 5월 19일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서울대와 시흥시가 대학과 도시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자 만든 공론의 장인 이 날 포럼에서는 ‘시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학과 도시를 인류문명 발전의 2대 요소로 규정하고 대학과 도시에 대해 각 분야의 관·학·산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는 홍윤철 교수(서울대 의대)와 김성균 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토론은 한진욱 팀장(경기도 공보건 의료지원단 공공보건의로 조사연구팀)과 박명희 소장(시흥시 보건소), 사회는 조영민(서울대 의대,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설립추진단장)이 진행하였다.

서울대총동창회 소식



동창회장단 간담회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김종섭(66사회복지) 회장은 지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7차례에 걸쳐 각 단과대학, 대학원, 특별과정 동창회장등 총 37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총동창회장이 각 단과대학, 대학원, 특별과정 동창회장들과 만나기 위해 이렇게 여러 시간을 할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4월 취임한 김 회장은 취임사에서 “본회와 각 단과대학·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가 유기적인 협력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겠다”라며 “동문 간 친목을 다지는 각종 프로그램을 단과대별 동창회의 특징을 살려 해당 동창회가 주도함으로써 더욱 끈끈한 유대 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화답하듯 각 동창회에서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총동창회 가족음악회에 총 6000여만 원의 찬조금을 보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배려로 7차례 모두 총장 공관에서 개최되었다.



사무국장단 간담회

총동창회는 지난 5월 20일 서울대학교 교수회관 4회의실에서 각 대학(원)·직능지부·특별과정 및 지방지부 동창회 사무처를 관장하는 사무총(국)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가졌다. 동창회 상호 발전을 위한 의견 교류의 장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본회 민수정(82회화) 사무국장이 참가했다. 특히 총동창회의 주요 사업과 행사를 소개하는 간담회 회의자료에는 미술아카데미 개설, SNU 아트페어 개최, 온라인갤러리 개설, 작품구입시 동문할인 등 본회와 총동창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자세히 게재되었다. 또한 김종섭 총동창회장도 “미래동창회가 총동창회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성공적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총동창회와 연계한 사업들이 더욱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회를 모범사례로 소개했다. 이날 총동창회는 앞으로의 역점사업으로 서울대인의 ‘나눔의 사회’ 정착, 총동창회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온라인 장터 ‘베리타스몰’을 개설, 평창캠퍼스를 동문들이 즐겨 찾는 힐링 명소로 탈바꿈 시킬 계획 등을 발표했다. 또한 ‘즐거운 총동창회’를 모토로 각 대학(원)·특별과정 동창회와 더욱 끈끈한 유대 관계를 구축해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동문들의 모임이 활성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6월 조찬포럼

- 일 시 : 6월 9일 (목) 오전 7시 30분
- 장 소 : 플라자호텔 4층 메이플홀 (서울시청 앞)
- 강 연 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
- 주 제 : 새 정부의 통일 정책
- 참 가 비 : 5만원 (조찬 및 도서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991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 문 의 : 총동창회 02-702-2233(대표전화)

6월 수요특강

- 일 시 : 6월 22일 (수) 오전 7시 30분
- 장 소 :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 강 연 자 : 황규득 외대 아프리카학부 교수
- 주 제 : 식민지배와 소말리아의 무정부성
- 신청기간 : 6월 1일 ~ 선착순 마감까지
- 참 가 비 : 무료 (김밥, 생수 및 도서 제공)

6월 등산대회

- 일 시 : 6월 25일 (토) 오전 10시
- 장 소 : 안산 (독립문역 5번 출구)
- 참 가 비 : 2만원 (중식 및 기념품 제공)
- 참가비 계좌 : 신한은행 140-013-055887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제18회 바둑대회

- 일 시 : 7월 3일 (일) 09:30 ~ 17:00
- 장 소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제3식당 (75-1동)
- 참가인원 : 150명 (동문, 재학생, 교직원)
- 진행방법
가. 단체전 : 단과대학, 지부별 5명(후보 1명 추가 가능)
나. 개인전 : 접수된 기력에 따라 최강, A, B, C, D, E, F조 등 편성
* 개인전 출전자는 단체전 출전 불가, 대국 방법은 변형스위스 리그로 진행
* 출전 동문수에 따라, 조 편성은 융통성 있게 적용
- 참 가 비 : 2만원 (계좌: 신한은행 140-013-055937 서울대총동창회)
(입금시 성함, 입학연도 표기)
- 참가신청 : 6월 22일(수)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jang9869@hanmail.net) 또는 팩스(02-703-0755) 신청
- 문 의 : 총동창회 02-702-2233(대표전화), 02-879-8204(담당자)

입학·졸업 70·60·50·40·30·20주년을 맞은 동문께 기념배지를 드립니다

1952, 1962, 1972, 1982, 1992, 2002년에 입학 또는 졸업하신 동문 중 신청하신 분에 한해 모교 기념배지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서울대인의 긍지가 담긴 기념배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념 배지 신청방법

- 신청기한 : 2022년 7월 5일까지
- 배 송 : 2022년 7월 말부터 순차 발송
- 신청방법 : 양식에 맞춰 이메일/홈페이지/문자로 신청
- 이메일 : member@snu.ac.kr
- 홈페이지 : www.snu.ac.kr (공지사항 참고)
- 문 자 : 1877-2039 (전화 수신불가)
* 답신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약 1~2주 소요)
- 신청양식
① 제목 : 기념배지 신청 ② 성명 ③ 학과
④ ○년 입학 또는 ○년 졸업 ⑤ 배송 받으실 주소 ⑥ 연락처
※ 기념배지는 동문 1인당 1개로 이전에 받으신 분들은 중복신청 불가
※ 단체 및 대리 신청, 해외배송 불가 ※ 배지크기 : 22mm×22mm

회비납부안내

연회비	회원	3만원(평생회비30만원)
	임원	회장 100만원
		부회장 30만원
		이사 10만원
찬조금		상시 환영

납부계좌 : 농협 301-0252-4434-51 권영걸(서울대미대동창회)
회비납부시 성명 · 학번 · 학과를 명시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총동창회비는 별개이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회비입금내역(4.29-5.26)-가나다순

- 부회장 회비 김춘수(77회화) 안필연(80조소) 하수경(70회화) 허 진(81회화)
- 이 사 회비 박소영(73회화) 박혜령(74회화) 전민숙(74조소)
- 일 반 회비 강관식(76회화) 김 봄(05조소) 김상경(87서양) 김선영(86동양)
김종수(93서양) 김철호(63회화) 김호준(92서양) 나형민(91동양)
서경덕(72응미) 서재영(71회화) 서해영(02조소) 손희옥(68회화)
오병욱(76회화) 이경림(86동양) 이광수(88동양) 이상순(60회화)
이승령(67조소) 이혜진(63회화) 이홍전(82회화) 이희숙(62회화)
정심미(63조소) 조용숙(63회화)
- 평 생 회비 허 진(81회화) 김진경(82응미) 김효숙(63조소)
신수진(91서양) 심현희(76회화)
- 후 원 금 육선희(76응미) 30만원
- 광고 후원금 D-pack 20만원

소식지를 휴대폰으로 보세요~

본회는 매월 온라인소식지 E-NEWS를 발간해 메일로 발송합니다. 소식지를 통해 전시, 행사나 경조사 등을 알리고 싶으신 동문께서는 동창회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회는 홈페이지와 소식지에 비즈코너를 마련해 동문들의 사업체를 소개해 선후배간 도움을 나누고자 하오니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동문께서도 동창회메일(snuarta@naver.com)로 성명(학번.학과), 사업체 명칭과 소개글, 이미지, 연락처, 홈페이지 주소 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창회SNS로 소식을 전하세요~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위하여 네이버밴드 · 인스타그램 등 SNS계정(명칭/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창회)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동창회 소식 및 공지사향, 동문동정 등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밴드에는 전시, 행사, 애경사를 직접 알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 회원인증을 위해 ID를 실명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ID예:김홍도(98동양)

축하기 · 근조기 안내

회원 및 회원가족의 결혼, 상 등 경조사시 축하기나 근조기를 보내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기와 근조기는 모든 회원께 무상 제공해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동창회 재원부족으로 당사자가 본인인 경우 외에는 요청하시는 회원께 배송비(지정업체 위탁)를 받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드립니다. 신청전화: 02-555-1946

광고협찬안내

회지광고를 통해 기업 또는 단체, 개인의 홍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찬해 주시는 광고료는 후원금으로 처리되며 이뉴스 발간 및 본회 사업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 회 지 명 : 서울미대동창회 E-NEWS

■ 발행방식 : 이메일 발송, SNS업로드(인스타그램, 밴드)

■ 광고마감 : 매월 20일

■ 발 행 일 : 매월 말일

■ 판 형 : A3(국배배판) 297x420mm

■ 연락처 및 이메일 : 02-555-1946, snuarta@naver.com

규격	광고료
전면	50만원
1/2면	30만원
1/3면	20만원
1/5면	10만원

국내최초 품격 작품포장 D-Pack의 시대가 열렸다—

‘10kg 이상 중량작품 포장 가능’
‘박스는 100호까지 자유로이 맞춤 제작’

작품의 운송과 보관을 위한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박스 D-Pack이 출시됐다. 2019 글로벌아트페어싱가폴(대회장 권영걸)의 국내외 전체 작품운송을 책임졌던 이한호 대청해운 대표가 삼십여년의 대형 글로벌 운송경험을 바탕으로 작품포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다. D-Pack은 플라스틱 소재의 포장박스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종이박스를 대체할 품격과 안전성, 내구성을 갖추었다. 또한 합리적인 가격과 맞춤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며 100호 이상의 대형작품도 가능하다.

연락처 : 02-783-7080

BOX 가격표							
호	가로	세로					
		F(인물)	가격	P(풍경)	가격	M(해경)	가격
1	22.7	15.8	5,000	14.0	4,500	12.0	4,000
2	25.8	17.9	6,000	16.0	5,500	14.0	5,000
3	27.3	22.0	7,000	10.0	6,500	16.0	6,000
4	33.3	24.2	8,000	21.2	7,500	19.0	7,000
6	40.9	31.8	9,000	27.3	8,500	24.2	8,000
8	45.5	37.9	10,000	33.4	9,000	27.3	8,500
10	53.0	45.5	12,000	40.9	11,000	33.4	10,000
12	60.6	50.0	14,000	145.5	13,000	40.9	12,000
15	65.1	53.0	16,000	50.0	15,000	45.5	14,000
20	72.7	60.6	18,000	53.0	17,000	50.0	16,000
25	80.3	65.1	20,000	60.6	19,000	53.0	18,000
30	90.9	72.7	25,000	65.1	23,000	60.6	20,000
40	100.0	80.3	30,000	72.7	28,000	65.1	25,000
50	116.7	91.0	35,000	80.3	33,000	72.7	30,000
60	140.0	97.0	40,000	89.4	38,000	80.3	35,000
80	145.5	112.1	45,000	97.0	40,000	89.4	38,000
100	162.1	130.3	50,000	112.1	45,000	97.0	40,000



동문탐방

제주에서 펼친 꿈

박충흠(65조소), 송유라(72조소)



빛을 조각하는 예술가 박충흠 동문

지난 5월 21일 오후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에 위치한 '제주 봄'의 박충흠, 송유라 동문 부부를 찾았다. 건물 앞 넓은 뜰에서 작품을 설치하던 박충흠 동문이 반갑게 맞아주며 설치되어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이어 송유라 동문이 박충흠, 김호득(69회화) 동문의 작품이 상설 전시되어 있는 두 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뮤지엄과 작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대자연 속에서 겸허해진 두 거장의 작품은 속세에 시달린 관객들을 명상의 단계로 빨아들이고 있었다. 박동문의 늘 새롭고 참신한 창작물은 대자연으로부터 얻은 정기로부터 탄생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빛을 조각한다'라는 새로운 개념을 창시한 박동문의 작품들은 작은 조각들로 자른 동판을 용접으로 이어붙여 탄생한 결과물들로, 동판조각 틈새로 투과된 빛은 우주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몽환적 결과를 자아낸다. 차가운 금속이 환상적 공간과 부드러운 빛을 퍼뜨리면서 천, 지, 인의 안과 밖을 상호 교차시킨 공명의 장을 자아내고 있다.



▲제주봄 뮤지엄의 박충흠 공간

박동문은 모교 재학시절 국전 입상으로 이미 유명해졌고 파리 국립미술학교 유학 후에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로 자리 잡았다. 1989년 갤러리 현대에서의 개인전 이후 교수직을 벗어나 작품과 명상을 위해 매진하다가 15년 만에 환기미술관에서 '빛을 조각하는 예술가'로 재탄생하였다. 조각가 박동문의 작품에서는 빛이나 조명이 필수 요소다. 이 작품 한가운데서 뿜어져 나오는 조명 빛은 밀폐된 사방 흰 벽에 오묘한 무늬를 드리워 신비로운 분위기로 관람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박동문의 작품은 다양한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현대백화점 등 서울의 많은 건물 및 명소에 설치되어 있다. 제주 서귀포 히든클리프호텔에 설치된 박동문의 작품은 호텔 대표가 호텔의



로비가 넓지 않아 작품 설치장소를 고민하자 박동문이 로비 천정을 적합한 설치 장소로 발견해 매달아 놓은 조형물이다.

자연에 수를 놓는 송유라 동문

송동문은 제주도 신혼여행 중 제주에서 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십 년 전부터 이를 서서히 실천해 왔었다.

제주봄 뮤지엄이 수많은 제주도의 미술관 중 가장 특색 있고 꼭 가봐야 하는 명소로 자리 잡게 될 때까지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해온 송동문은 대지 예술가로서 그 넓은 화단의 나무며 꽃들을 매우 조화롭게 기르고 가꾼다.

조각가의 꿈 대신 자연을 가꾸는 예술가, 카페와 뮤지엄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물론 미술기획자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송동문은 많은 관람객들과 기쁨을 공유하는 행복을 누리며,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또 하나의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 진행 중이다.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제주봄

박동문과 송동문이 이십여 년 전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의 자택을 개조해서 운영했던 과천 갤러리카페 봄은 동문들의 작품들을 위주로 한 달에 한 번씩 초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두 동문은 이 곳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보다 확장된 제주 봄을 운영하고 있다. 미술관과 스테이, 카페로 이루어진 제주 봄은 아래쪽



▲제주봄 카페

에는 레지던스가 가능한 아름다운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으며 박동문의 조각제작 작업실과 야외조각공원이 공존하고 있다. 또한 설치작품들이 군데군데 자리한 산책길에는 전망이 멋진 포



▲제주 봄에서 바라 본 풍경과 박동문의 조형물



▲연못 속에 설치된 박동문의 조각작품

토존과 아기 동백나무 터널, 연꽃 형상의 작품이 자리한 연못을 둘러 볼 수 있다. 특히 독특한 디자인으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룬 제주 봄 건물과 자택은 건축가 김개천 국민대 교수가 설

계한 미니멀한 건축물로, 이를 통해 자연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었다.



▲제주 봄 건물을 통해 더욱 높게 보이는 하늘

박동문과 송동문이 꿈을 실현하고 있는 이 명소에 우리 동문들이 방문하고 전시회도 개최한다면 더 많은 영감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이민주 주간

제주봄

주소 : 제주 서귀포시 검은여로130번길 68-16

전화 : 064-732-6500

대구예술발전소 특강

대한민국의 문화예술의 수호자가 전하는 메시지

이종상(59회화)



화폐 영정 화가로 잘 알려진 일랑(一浪) 이종상 동문의 강의가 지난 5월 21일에 대구 예술발전소 만권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강의는 일반 시민과 예술가들에게 최신 경향의 문화예술 정보 문화 소양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재)대구문화재단 대구예술발전소에서 매월 1회 개최하는 특별초청강연 'DAF 렉처'로, '우리 문화의 자생성과 한국 미술'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강연은 서울시립미술관과 영은미술관 큐레이터를 역임한 최정희 전시기획자가 진행하였으며,

한국미술의 얼과 혼을 담은 원형상 시리즈, 신벽화, 현대진경, 표준영정과 지폐 그림, 루브르박물관으로부터 영구 설치 제안을 받았던 대형 작품 '마리산' 등 이동문의 작품세계를 두루 살펴보고, 우리 미술의 자생성과 정체성 모색을 위해 노력해 온 이동문의 실천적 업적과 철학을 함께 들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동문은 5만원권과 5천원권에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 모자의 화폐 영정을 그린 한국화가이자, 생존 작가 최초로 루브르박

물관에 초대되어 71m 폭의 설치 작품을 선보인 바 있는 국제적인 현대미술가이다. 그는 1961년 모교 3학년 재학 중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 3년 연속 특선, 국전 사상 최연소(당시 24세) 추천작가로 입문하였고, 1977년(당시 36세) 5천원권 지폐에 들어갈 율곡 이이 영정 작가로 위촉되었으며, 현재 국내 유일한 생존 화폐영정 작가이다. 또한 독도를 그린 첫 화가이며, 서울대학교 박물관장 시절 대학 미술관 최초로 '독도진경기획전'도 개최한 바 있다. 한국화가이자 철학박사이기도 한 이동문은 작품 활동 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지키고 세계에 알리는 일에 앞장서 왔다. 1960년대에는 문화영토론에 입각하여 고구려 문화 지키기 운동을 펼쳤으며, 이어 1970년대에는 국내 최초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독도 문화심기운동 NGO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1977년에는 고구려, 발해, 고려 미술 연구에 앞장선 바 광개토대왕의 국가 표준영정을 맡아 그리기도 했다. 이처럼 이동문은 2021년 현재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정부표준영정 98점 가운데 율곡 이이와 더불어 광개토대왕, 우륵, 원효, 김홍도, 장보고, 나대용 장군, 윤관 장군, 윤선도 등을 제작한 표준 영정의 대가이기도 하다. 또한 가톨릭으로 귀의한 후 2017년, 병인순교 150주년을 기념한 충청남도 신리성지순교미술관 벽화작업을 맡아 한국의 천주교 역사 수호 화가라는 위대한 족적을 남기기도 했다. 이 외에 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한국벽화연구소장, 고구려문화지킴이운동본부장, 독도문화심기운동본부 대표로서 후학 양성 및 한국 문화계를 위한 활동을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사천 용조형물 김홍규(83공예)



김홍규 동문이 경남 사천시 실안에 설치한 전국 최대 규모의 용 조형물이 관광객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조형물이 설치된 장소는 전국 9대 노을로 명성이 높은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대상에 빛나는 삼천포대교 인근으로, 한려수도로 떨어지는 낙조와 김동문의 조형물이 어우러져 환상의 하모니를 연출하고 있다. 조형물은 길이 25m에 이르는 웅장한 외형과 함께 영롱한 여의주를 중심으로 두 마리 용이 서로 엉켜 승천하는 듯한 모습으로 환상적이고 신비한 장면을 연출하고 있다. 한 마리는 구구연화봉이라고도 불리는 외룡산에서 내려 '와룡이', 또 다른 한 마리는 구

룡산에서 왔기에 '구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무엇보다 승천하는 용의 기상과 아름다운 실안 노을빛으로 눈을 멀게 한다는 스토리텔링을 접목해 희망과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뜻으로 '희망의 빛'이라는 부제도 담았다. 용이 물고 있는 여의주는 낮에는 짙은 바다 빛으로 보이며, 여의주를 통해 태양을 바라보면 투명한 에메랄드빛으로 빛난다. 해질 무렵에는 실안 낙조를 품어 붉은빛이 되었다가 일몰 후에는 조명에 따라 다채롭게 변화하는 등 신비롭고 다양한 매력을 뽐낸다. 하진건 관광개발팀장은 "와룡이와 구룡이가 실안 노을에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볼거리와 환상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천시는 사천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도록 '용(龍) 포토존'을 실안 노을전망고 옆에 설치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및 동대학원 공예과를 졸업하고 현재 창원대학교 산업지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금속공예, 조각분수 및 환경조형물, 공공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다.

이당미술상 수상 최영결(87동양)

최영결 동문이 지난 5월 4일부터 9일까지 인사동 동덕아트갤러리에서 열린 제51회 후소회전에서 이당미술상을 수상했다. 이당미술상은 이당 김은호 화백을 기리고자 1997년 제정되었으며, 후소회(회장 오용길/66회화)가 회원 전원의 투표에 의해 수상자를 매년 선정해 왔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시상식을 미뤄오다 3년 만에 최동문이 수상하게 됐다. 이당 김은호 화백의 화실 낙청헌에서 그림을 배운 제자들이 창립한 후소회는 1936년에 창립된 이래 지금



까지 86년 동안 같은 이름으로 전시회를 개최하며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는 동양화가들의 단체이다. 한편 모교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최동문은 전통적 한국화의 재료와 기법을 충실히 따르면서도 극사실 표현으로 한국 사계절의 풍경을 현대적으로 담아내 국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롯데홈쇼핑과 NFT협업 노준(89조소)



동물캐릭터 연작으로 잘 알려진 노준 동문이 유통업계 최초로 NFT(대체불가토큰) 마켓플레이스인 'NFT SHOP'을 오픈한 롯데홈쇼핑과 협업하여 영상을 제작했다. 노동문이 제작한 60초자리 3차원(3D) 분홍색 '벨리곰' 영상은 지난 5월 2일 롯데홈쇼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개되었고 개당 6만 원씩 300개가 한정 판매된다. 롯데홈쇼핑의 119만 팬덤을 보유한 자체 캐릭터 분홍색 '벨리곰'과 원숭이 키키가 등장하는 해당 영상은 낮에 떨어져 있던 두 캐릭터가 밤중에 만나는 장면을 그렸다. '벨리곰'영상은 지난 5월 4일 오전까지 160개가 판매되었으며, 구매한

고객들은 상품평 코너에 "생각보다 꽤 고퀄(고품질)이네요" "귀엽고 따뜻한 감정이 느껴진다" 등의 평가를 남겼다. 마켓을 통해 구입한 NFT는 롯데홈쇼핑 모바일 내 'MY NFT 지갑'에 보관되며 올해 안에 세계 최대 NFT 마켓플레이스인 '오픈씨(OpenSea)'에서 2차 판매가 가능해질 예정이다. 롯데홈쇼핑은 NFT 기술을 벨리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으로 적용 및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진출도 계획 중이다. 한편 노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에서 조소를 전공했으며 동심 가득한 동물캐릭터 시리즈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깜찍이 소다' 클레이 애니메이션 광고가 주목을 받으면서 1999~2002년 방송에서 클레이 만들기 프로그램을 맡기도 했으며 2019년에는 중앙아시아 문화예술 중심지인 아부다비에서 아시아 작가 최초로 작품을 전시했다. 2006년 송은미술전 대상과 2007년 모란 조각대상전 특선 수상, 2008년 김세중청년조각상을 받았다.

도화헌미술관 세미나 진행 서길현(91조소)



2022 도화헌미술관 레지던시의 작가 역량 강화 세미나 - 자연과 함께 프로젝트 세미나 '인시투(in situ: 장소 특정적 작업에서의 자연과 장소)'가 지난 5월 17일 고흥 도화헌미술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의 발표를 맡은 서길현 동문은 프랑스 파리 1대학 팡테옹 소르본에서 조형예술학 박사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미술 잡지 <미술과 비평> 평론 위원으로 미술비평 활동과 함께 개인전과 단체전을 통해 평면과 입체를 아우르는 작품 활동도 활발하게 해 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의 내용은 제목에서 보여 지듯 장소의 맥락에 맞춰 이루어지는 미술 작업과 작품들의 다양한 의미와

결과물들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리차드 세라, 다니엘 뷔렌, 리차드 롱, 클라우디오 파르미지아니, 앤디 골즈워디 등



2022 57TH 갤러리 초대전, 2021 마루아트센터 특별관 개인전, 2020 한경갤러리 초대전, 2019 금오공대 갤러리 초대전, 2017 김세중미술관 개인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여러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맥락을 짚어나갔다. 도화헌 미술관은 폐교를 개조하여 이십여 년간 전시회 및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한편 서동문은 2022 문화공간 흑백 초대전과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도서지원 이수지(92서양)



안데르센상 수상 작가 이수지 동문이 인터넷 서점 알라딘과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도서 지원에 나섰다. 알라딘은 지난 5월 3일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수상한 이동문과 국제 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지부(KBBY)와 함께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 도서 지원을 위한 포스터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동문이 그린 '굉장한 독자들 Amazing Readers' 포스터가 5월 3일부터 알라딘 홈페이지를 통해 판매됐다. 판매는 펀딩 형식으로 진행되며 수익금은 전액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를 위한 도서 지원 사업에 쓰이게 된다. '굉장한 독자들' 포스터는 매년 KBBY에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하는 독서 진흥 포스터로 2009년부터 한국의 그림책 작가들의 후원으로 제작 및 배포됐다. 올해 이동문이 그린 이

포스터에서는 그의 그림책에서 볼 수 있었던 특유의 색채와 선이 돋보인다. 이동문은 작업 후기를 통해 "'똑바로 앉으라'라는 어른들의 잔소리에 아랑곳



하지 않고, 스스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책 속 세상으로 건너갈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을 갖춘 독자들'을 그렸다고 "그렇게 책 속을 유영하는 어린 독자들을 그려 보고 싶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후원은 KBBY가 우크라이나 출판사와 접촉하여 어린이책 인쇄용 파일을 제공받아 책을 보내거나 직접 책을 확보해 어린이들에게 배포하는 방식이다. 국제 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한국지부(KBBY)는 "현재 폴란드에서 200만 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전쟁의 포화를 피해 모여들어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기약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인 IBBY를 통해 폴란드의 어린이책 관련 재단과 제휴해 우크라이나 난민 어린이에게 책을 공급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양주시 '안부 신호등' 운영 이장섭(97산디)



중장년 1인 가구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처음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서로 주고받는 간단한 안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 건강 상태를 파악해 적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대처하고자 마련됐다. 시는 첫 '안부 신호등' 프로그램으로 옥정동 LH 천년나무 8단지 아파트 주민 중 장애인, 홀몸 어르신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도시민 공동 치유정원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기도 양주시는 시민의 마음 건강과 사회적 고립의 적신호를 감지하고 치유하기 위해 이장섭 동문의 '안부 신호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부 신호등'은 모교 디자인과 교수인 이동문이 2021년 서울시 관악구 고시촌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5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약 6개월간 진행되며, 공동 텃밭을 조성하고 치유 원에 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참여자들이 지역사회의 주도적 삶의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공



동 치유정원에는 상자 텃밭, 툇 텃밭을 비롯해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높임 화단도 함께 설치됐으며 정원을 가꾸는데 필요한 물은 빗물 저금통 방식으로 자연 빗물을 활용한다. 또한 참여자 간 교감을 하며 쌈 채소류와 가을 김장채소류를 재배하고 수확물을 가지고 간단한 요리도 만들어 나누게 된다. 시 농업기술센터는 "시민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건강을 위해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이웃들과 함께하는 치유농업활동을 통해 우울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갖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이스트미술관 초대관장 이진준(01조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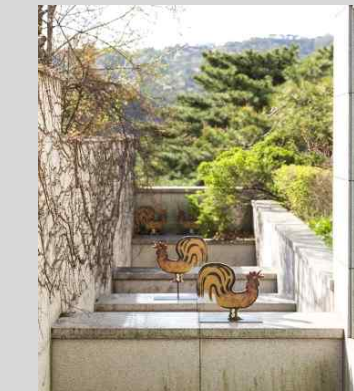


올해 조소과에 편입해 학사와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영국 왕립예술대학(RCA)에서 석사학위, 옥스퍼드대 인문학부 미술대학(러스킨 스쿨) 순수미술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국내외 미술관에서 50여 회의 전시와 강연을 진행하며 현대미술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인정받고 있으며, '경계 공간'을 다룬 박사 논문으로 작년엔 찰스 디킨스·스티븐 호킹 등이 거쳐 간 '영국 왕립예술

이진준 동문이 2023년 개관 예정인 카이스트 미술관 초대 관장에 낙점되었다. 이동문은 2021년 카이스트 50년 역사 최초로 미술가 출신 전임교수(문화기술대학원)로 임용된 인물이다. 이동문은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후 서

학회' 종신 석학 회원에 선정됐다. 이동문은 서울 상암 DMC 상징 조형물인 12m 높이 미디어 조각 'THEY'(2010)을 작업하는 등 한때 국내에서 촉망받는 미디어 작가였지만 공부를 하러 영국으로 떠났다. 그는 "숙취에서 깨어난 아침, 갑자기 영감 솟구쳐 그림 그리는 시대는 끝났다. 공부 못해도 미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예술 하려면 문사철(문학·역사·철학)은 기본, 과학기술까지 알아야 하는 세상이다"라며 "AI 시대, 미래 예술은 공학·예술·인문학이 융합된 형태다. 그 실험을 하기에 공학 베이스가 탄탄한 카이스트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라고 전했다. 이동문은 카이스트에 임용되며 미국 'MIT 미디어랩' 같은 'TX(Total Experience · 총체적 경험) 랩'을 만들었다. 그는 이곳에서 '경계 공간'에서 발생하는 기술과 생태학적 논의를 바탕으로 예술과 건축, 디자인을 융합해 연구한다. 또한 "예술은 고정관념, 강박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지금은 미디어 매체가 인간 감각 경험을 극적으로 확장하는 시기다. 아예 다른 예술이 열리고 있다"라며 "한국 예술계에는 '거장을 길러야 하는 여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예전(長藝展) 임옥상(69회화) 김병중(74회화) 외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 평창동 영인문학관에서 '장예전(長藝展)'이 펼쳐졌다. 이 전시는 지난 2월 타계한 이어령 선생의 49재를 맞아 이어령의 긴 예술(長藝) 이야기이자, 예술계의 큰 어른(長)을 예술(藝)로 보내는 장례식이다. 고인 작고 이틀 전, 장례식을 디자인해 주겠다는 예전 약속을 확인받은 이영혜 디자인하우스 대표가 전시를 총괄 기획했다. 전시 참여 작가들은 고인 생전에 인연이 있던 이들도다. 영인문학관에 들어서자마자 김병중 동문이 그린 닭 조형물(▲사진)이 관람객들을 안내한다. 닭띠인 고인은 '새벽에 외치는 소리'라는 닭의 상징을 좋아했다고 한다. 공간 디자이너 임태희 소장이 전시장 전체를 나무 구조물과 광목 휘장으로 감싸 공간을 통해 장례 의식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래픽 디자이너 채병록이 전시 상징을 표현했다. 문학은 물론 미술, 건축, 음악 등 분야를 넘나들며 한국성을 탐구해온 고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하 2층에서 고인의 어린 시절 가족사진부터 초등학교 1학년 성적표, 교수 시절 서류 가방, 자

필 원고 등 선생의 유품으로 생애를 살펴볼 수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개폐회식 총괄자였던 기획력으로 소개한 굴렁쇠 소년은 양정웅 아텍 컴퓨터 대표를 통해 홀로그램으로 재탄생했다. 지하 1층에서는 이우환(56회화) 동문, 백남준 등 미술계 거장들과 교류한 흔적들이 임옥상 동문의 작품(◀사진)과 함께 소개됐다. 고인을 추모하는 공간은 김아타 작가가 찍은 거대한 흑백사진과 함께 후대의 DNA 연구를 위해 그가 남긴 손톱과 머리 카락이 전용복 칠예장의 옷칠함에 담겨 있다. 김희원 작가는 타들어가며 사라지는 촛불 영상을 통해 영원으로 이어지는 소멸을 이야기했다. 텍스타일 아티스트 정희기가 거대한 원고지 천에 고인의 자필 문구를 수놓은 작품에 감탄하고, 가든 디자이너 허성하가 만든 정원 좌대에 앉아서 만장처럼 휘날리는 조문객들 헌사를 감상하며 전시를 마무리한다. 부인인 영인문학관 강인숙 관장은 "이 선생을 애도해 주신 모든 분께 이 전시가 위로의 손길이 되어주기를 빈다"며 "앞으로 선생 기일마다 관련 전시를 열 예정이다"라고 했다.



메타갤러리 '루나' 초대전 방혜자(56회화)

'빛의 화가'로 알려진 재불작가 방혜자 동문의 기획전이 지난 5월 11일 메타갤러리 루나의 개관 첫 전시회로 열렸다. 이번 전시에서는 일평생 빛에 대한 탐구에 몰두한 방동문의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고, 빛의 아름다움을 회화,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여러 형태로 재현한 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얼마 전 5월 2일에 프랑스 고딕 예술을 대표하는 샤르트르 대성당에 설치가 완료된 방동문의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빛의 탄생' 모형이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자리매김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다. 방동문은 60여년간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활발한 작업을 펼쳐오고 있으며, 파리 세르누치박물관과 국내 영은미술관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100회가 넘는 전시를 개최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가로

진부령미술관특별초대전 조은경(61회화)

조은경 동문의 개인전이 5월 19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부령미술관에서 열린다. 조동문은 경기여자고등학교를 졸업 후 모교 동양화 전공으로 학사 및 석사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학교 가정대학, 덕성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강사를 지내며 4차례의 개인전을 갖는 등 후학 양성과 개인 작업 활동을 또한 활발하게 이어나갔다. 이번 전시는 조동문이 진부령 미술관에 자신의 분신 같은 작품들을 기증하고 열리는 첫 전시이다. 조동문은 꾸준히 자연에 대한 탐구를 지속적으로 하시며 특히 나무와 숲에 대한 애정을 수묵담채로



표현하였다. 특히 골법용필의 기본 필력을 바탕으로 부드러운 물골법과 혼용하여 화육법 중 동양화에서 가장 중시하는 기운생동의 결과물을 창조하였다. 이러한 조동문의 작품들이 강원도 인제군 북면 흘리길에 위치하고 있는 진부령미술관과 호흡을 맞춰 이번 전시는 더욱 빛이 난다. 미술관측은 조동문의 작품세계를 감상하는 많은 관람객들이 자연과 작품으로부터 힐링 받기를 기대하며 후배 동문들 또한 진부령 미술관과 연계해 전시회를 지속해가기를 바라고 있다.

3인의 소풍가는 길 김중학(56회화), 이창분(75회화)



김중학, 이창분, 김명식 작가의 '3인의 소풍 가는 길'이 5월 3일부터 6월 26일까지 제주돌문화공원 내 갤러리누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세 작가는 생동감 넘치면서 따뜻한 색채들을 활용한 작품 35점을 펼친다. '설악산

화가' '꽃의 화가'로 알리는 김중학 동문은 설악산에서 만난 원색의 꽃과 나비, 벌, 물, 바람 등 자연을 화려하고 생동감 넘치는 기운으로 표현했다. 이창분 동문은 꽃과 꽃잎, 나뭇잎의 형태를 다듬어 색채와 기억의 조각들을 정갈한 그림 언어로 화폭에 옮겼다. 전시기획에 참여한 김중근 미술평론가는 "예술가의 소풍 길이란 같은 길을 가더라도 서로 다른 풍광에 눈을 잃고, 서로 다른 음색으로 연가를 부르는 일"이라고 전시 의미를 확장했다. 소풍을 한자 말대로 풀어보면 '바람따라 노닐다'는 뜻이라 더 와닿았다는 갤러리누보 송정희 대표는 "삶이, 소풍을 즐기다 떠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바람 따라 노닐 듯 숲과 그림을 즐기는 소풍 길에 동행하길 바라는 마음을 전시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작고20주기 기획전 황창배(66회화/1947-2001)

한국화가 황창배 동문의 작고 20주기 기획전 4부 전시 '황창배의 돌 그림'이 지난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서울시 서대문구 황창배미술공간에서 열렸다. 송희경 이화여대 초빙교수가 기획한 이번 전시에서는 황창배 동문은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에 그린 돌 그림을 선정해 작가가 사랑한 돌 그림의 여러 조형성을 살펴보았다. 우뚝 솟은 괴석부터 돌과 돌이 첩첩이 쌓인 산등성이까지, 황동문의 돌 그림이 보여주는 시각성은 매우 다양하다. 때로는 도끼



로 내려친듯한 부벽준(斧劈皴)으로, 때로는 경쾌한 필선으로 돌의 질감을 표현했고, 농담을 활용한 파필과 발묵으로 돌을 종이에 옮겼다. 황창배미술공간은 "황창배 작가는 지필묵의 경계를 허물며 새로운 조형성 탐구에 매진하면서도 옛 성현의 회화 이론과 예술성을 결코 잊지 않았다."라며, "돌 그림에도 전통을 계승하고 소중하게 여긴 작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겼다"라고 설명했다.

3D 박항률(70회화)

박항률 동문이 참여한 갤러리내일 기획 3인 초대전 '3D'가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2일까지 성황리에 마쳤다. 화가이자 시인인 박동문은 세종대학교 서양화과 명예교수로 재직하며 국내외 수십 회의 개인전과 수많은 단체전을 통해 명상으로 승화된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박동문은 제19회 상파울루 비엔날레(1987, 상파울루), '90-새로운 정신'전(1990, 금호미술관), 제8회 인도트리엔날레(1994, 뉴델리), NICA'99(1999, 도쿄) 등 주요한 국내외 그룹전에 초



대되었고 제17회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에 참여했다. EU한국대표본부,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주 네팔 한국 대사관 등에 주요 작품이 소개되어 있다. 또한 박동문은 비어, 천마, 삼죽오, 인면조 등 상상의 동물들을 화폭에 담아 현대인의 삶에 신화적 상상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지성인의 고뇌와 회환을 담아내는 '명상의 화가'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Find your light 서도식(74응미)



서도식 동문의 개인전 'Find your light'가 5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갤러리미에서 열려 금속 달 향아리와 부조 작품 15점을 선보였다. 평균 1만 번 가까이 망치질을 통해 그가 만들어낸 달 향아리는 도자기 못지않은 매끈하고 부드러운 자태를 뽐낸다. 이번 전시는 지난 1년간 서동문이 걸어온 수행의 소산으로, 그는 "빛을 찾아서, 그리고 나를 찾아서 몰두한 시간과 그 과정의 기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루 꼬박 4시간씩 은판을 두드리는 작업을 반복했다"라며 "항암치료 중 근육이

약해진 탓에 의사도 작업을 말렸지만, 오히려 이런 상황이 더 작업에 매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웃어보였다. 8년 전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이던 서동문은 식도암 진단을 받았으며 2년 뒤 악성 림프종, 또다시 2년 뒤 암이 재발했다. 세 번에 걸친 죽음의 고비를 넘긴 그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작업실로 향했고 반복된 작업을 통해 근육이 붙고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지난 2월 정년퇴임 후 "오롯이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한다. 오랫동안 신념처럼 고수해온 철저한 계획, 정교한 디테일로 대변되는 수공 기술을 내려놓고 풍만한 향아리에 집중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서동문은 "향아리가 갖는 풍성한 양감, 그 볼륨감이 메마른 내 마음을 풍족하고 따뜻하게 만들더라"라고 말하며, 비로소 마주한 빛 그리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작업을 앞으로도 이어가고 싶다고 했다.

하늘, 바람과 별-Eco-J 문혜정(74회화) 전성규(81회화) 허진(81회화)

문혜정, 전성규, 허진 세 동문이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열리는 베카갤러리 개관기념 초대전 '하늘, 바람과 별-Eco-J'에서 작품 20여 점을 선보인다. 3인 공통의 생태학적 의미를 담은 이번 전시에서, 문동문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의 조건을 조망하는 작업을, 전동문은 인간의 본질을 자연과 우주의 원리에서 찾고자 하는 작업을, 허동문은 정체되지 않고 끊임없이 돌고 도



는 순환을 뜻하는 작업을 보여 준다. 문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 졸업하고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조형예술대학 전문가 연구과정을 졸업했으며, 전동문은 모교와 동 대학원 졸업 후 호주 RMIT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목포대학교 교수이다. 허동문은 모교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교수이다.

Soul Fishing 김홍진(80조소)

김홍진 동문이 개인전 '소울 피싱'을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4일까지 부산 갤러리 이듬에서 열었다. 이번 전시는 2020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Soul Fishing' 전시와 워크숍에서의 경험을 연장한 전시다. 김동문은 한국 자연환경과 문화적 공간을 찾아다니며, 그 터의 숨결과 호흡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는다. 전시를 통해 그는 "인간의 의식 활동에서 자각은 순간이며, 그 순간을 의식하는 것에 대해 보다 깊이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삶의



시간 속에서의 반복, 되풀이, 통찰이 어떤 구조와 과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김동문은 자연 안에서 자신의 기운과 자연의 기운이 마주하며 새로운 에너지를 주고받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이 경험을 매주 두 편씩 유튜브(KUNST Soul Fishing)에 소개하면서 작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공유하고 있다. 김동문은 모교와 브레멘조형예술대 자유조형과 졸업후 조각과 회화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보이는 것, 보이지않는 것 그 사이에서 송인옥(82회화)

송인옥 동문의 개인전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그 사이에서..'가 지난 5월 2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강남구 갤러리 1707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선보였던 다양한 색채의 원형 시리즈 작품들의 연장선에 있으며, 새로운 형식의 품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머무르는 의미로 선보였다. 잔잔한 붓 터치와 간결한 선 무심한 점이 가득한 캔버스에는 층층이 겹쳐져 잘 보이지 않는 붓 자국과 선, 면이 보이는 것보다 더 많다. 애뜻하고 소중한, 사소하면서도 하찮은 감정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있다. 지움과 덧칠이 되풀이된 풍경은 작가



가 느끼고 스쳐지나 보낸 수많은 감정의 기록이다. 우주의 순환을 떠올리는 이 시리즈 작업은 '상당'을 통해 내면세계를 깨달아 가는 여정의 출발점이 된다. 송동문은 되풀이되는 일상 속 익숙한 풍경 위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담아 무의식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기억 속에서 파편으로 남은 것과 희미하지만 아련한 감정으로 살아남기를 바라는 것들을 하루하루 제각기 다른 색과 크기의 점으로 표현하며 자신의 기록을 채워 가고 있다.

오늘하루-나무, 탑, 사람 신하순(83동양)



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신하순 동문이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서울 신촌 아트레온갤러리에서 개인전 '오늘하루-나무,탑,사람'전을 연다. 신동문의 그림은 작가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의 기록이다. 일상적인 생활의 공간뿐 아니라 여행의 공간에

서도 신동문의 그림의 특징은 여실히 드러난다. 신동문의 여행그림은 장소별로 제각각의 선묘, 색채, 구도로 그려져 다채로운 조형이 특징이다. 신동문의 여행그림은 사생의 결과물이 아니다. 현지에서는 자신의 인상과 감각을 흐릿하게 스케치할 뿐, 작업실로 돌아와서야 각 장소를 또렷이 기억해 내어 그린다. 신동문은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의 일상과 지난 여행의 스케치를 기존의 수묵과 채색 재료를 넘어 백자, 목판, 천 등 다양한 재료를 시도하며 본인만의 방식으로 풀어낸다. 한편 신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동양화과,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미술대학 Aufbaustudium 회화전공을 졸업하고 현재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Convalescence 김봉중(84서양)

김봉중 동문의 개인전 '회복기'(Convalescence)가 지난 5월 9일부터 18일까지 뉴욕 맨하탄 케이트 오 갤러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는 회복기를 암시하듯 미술의 치유적 속성을 강조하면서 작품을 통해 마음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의미를 담았다. 김동문은 컴퓨터부속품, 비닐, 모래, 나뭇가지 등을 이용한 이미지 재료를 양귀비 시리즈, 로봇 시리즈, 우주 시리즈 등 회화적인 현대미술을 창출 시키고 있다. 인터넷중독장애(IAD)를 예술적으로 연구한 그는 작품에



꽃을 그리고 그 위에 컴퓨터 부품들을 놓아 인터넷 게임, 쇼핑, 사이버섹스 등에 몰두하는 개인과 가정을 표현하며 나아가 경제적 문제, 저출산 문제 등도 심도 있게 다룬다. 90년대에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온 김동문은 그리스 컨템포러리뮤지엄과 뉴욕 퀸즈뮤지엄, 나비뮤지엄 등에서 8회 개인전과 수십회의 그룹전을 통해 다양하지만 주관성에는 흔들림이 없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직관의 시간 나옴이 군지(86동양)



나옴이 군지 동문의 초대전 '직관의 시간'이 5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 갤러리거제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나옴이 동문이 모교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현재까지 30여 년 동안 시기별로 변화 발전해온 과정을 회고 형식으로 구성한 전시이다. 제1 전시실에는 2010년 이후에 그린 자연 작품들로 자연에 대한 탐구와 존중, 자연에 깊은 애정을 갖고 그 자연에 스며들어 자연의 미묘한 빛과 공기의 변화를

공감각적인 표현으로 그려냈다. 제2전시실에는 1980년 초부터 1990년대 후반의 작품들로 인물·풍경·정물을 망라하여 아카데미즘이 요구하는 조형 개념 및 기법을 정확히 표현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사실주의 화풍에 가장 충실한 분위기를 보여준다. 특히, 단순히 기술적인 습득에 그치지 않고 사실주의 회화에서 요구하는 수준 높은 조형성 및 예술성을 갖추고 있어 감각적이면서도 세련된 조형미는 아카데미즘이 지향해 온 순수미의 전범(典範)으로서 손색이 없는 작품들이다. 제2전시실에서는 동화 삽화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다. 한편 일본인인 나옴이 동문은 일본 무사시노미술대학 유화과를 졸업한 후 동양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왔으며, 부군이 조각가인 고 도흥록(75조소/1956-2016) 동문이기도 하다.

까마귀의 수다 김상경(87서양)



김상경 동문의 17번째 개인전 '까마귀의 수다'가 지난 5월 1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종로구 갤러리 고도에서 열렸다. 요양차 방문한 제주에서 치유의 경험을 한 이후 2015년부터 매년 제주의 여러 오름과 동식물의 생명력을 주제로 개인전을 발표해 온 김동문은 이번 전시에서 하와이의 브레드트리와 까마귀 연작을 선보였다. 김동문은 "오름의 수호자처럼 신령스러웠던 까마귀가 도시에서 삭막하게 쓰레기를 뒤지고 싸우는 것을 보며 존엄이나 인류애와 거리

가 먼 우리의 모습을 연상했다. 제주와 하와이는 화산섬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에 비슷한 인상을 준다. 코로나 발생 전 하와이를 방문하며 더 이상 자연에서 살 수 없게 된 하와이까마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들이 잘 살아간다면 이 땅의 까마귀도 존엄성을 지키며 사이 좋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상상과 소망을 비육한 붉은 땅위의 브레드트리와 까마귀 연작을 통해 표현했다"라고 전했다. 까마귀 시리즈 중 하나는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에 소장되어있으며, 제주풍경의 작품들도 천안지원과 제주검찰청, 미술은행 등에 소장되어있다. 한편 김동문은 모교 및 동 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15회의 개인전 및 90여회의 그룹전 등 작품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또한 예원학교, 안동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수원대, 청주대에서 강의했고 26년째 예원학교에서 재직하며 후학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Home, Sweet Home 김덕기(89동양)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며 행복의 중심은 '가족'이라는 행복 메시지를 전파하

전주 교동미술관은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8일까지 중앙 우수작가 초대전 '김덕기 Home, Sweet Home'을 가졌다. 교동미술관은 지역을 넘어 전시작가의 다양성과 분야 전문성을 확립하고자 중앙 우수작가 초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행복하고 단란해 보이는 가족들의 모습을 그리며 행복의 중심은 '가족'이라는 행복 메시지를 전파하

고 있는 김동문은 모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였지만 표현기법의 틀에 갇히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화의 재료를 넘어 캔버스에 아크릴을 이용, 더욱 경쾌한 색채를 통해 관객에게 다가가고 있다. 이번 초대전에서는 김동문의 초기 수묵채색화부터 가족과 함께 했던 여행지의 추억을 담은 근작들, 시대에 발맞추어 NFT기법으로 제작한 영상들까지 함께 전시하여 변화되어가는 화풍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 김완순 교동미술관장은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작품을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가정의 달과 어울리는 행복한 작품과 함께 사랑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畫畵(화획) 임상빈(95서양)



임상빈 동문의 전시 '畫畵(화획)'이 갤러리나우에서 5월 6일부터 5월 31일까지 열렸다. 이번 전시에는 회화와 사진 두 가지 매체로 전시를 한다. 이번 작업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부분과 전체, 감성과 이성, 시작과 성장 등 천일야화 같고 삼라만상의 이치와 상호작용의 밀고 당김을 모두 담고 있다. 사진, 회화, 드로잉,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미디어로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임동문은 우리 모두가 알만한 세계의 랜드마크적인 건축물을 여러 조각으로 촬영하여 디지털 콜라주 방식으로 재배치하여 확대 혹은 축소 재생산되어 기하학적이거나 밀도를 높여서 현실을 기반

으로 한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번에 보여주는 사진작업은 적극적으로 시점을 바꾸어서 촬영한 여러 사진 조각들의 몽타주작업을 통해 인식적인 풍경으로 변모시킨다. 즉 밖을 통해 안을 보고 안을 통해 밖을 구현 해 주는 멋진 상상력을 동원하여 우리의 시각을 즐겁게 하기도 하고 한공간이 현실보다 기계적 시점으로 입체적, 구조적 형상으로 변모하여 드러난다. 씨줄날줄을 엮어서 구축한 감독의 눈으로 인식에 대한 개념을 확장 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그의 페인팅 작업에서 작품이 성장하듯이 사진 작업에서도 포토몽타주 작업을 통해 성장의 과정을 거친다. 거기에 최종 알루미늄에 염료를 입히는 프린트방식으로 아주 오랜시간을 견디고 굳이 액자가 필요 없는 작업으로 완성된다. 한편 임동문은 모교 서양화과 졸업 후 풀브라이트 한미교육위원단의 장학생으로 예일대 대학원에서 회화.판화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콜럼비아 대학원 티처스칼리지 미술교육 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중이다.